

상업적 의도없이,
* 복제 및 복사, 다른 사이트 영록은 출처를 밝히면
모두 가능합니다. ^^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CRBI 이현호 T.

답지안보고, 30분제고 풀었습니다.
런장감이 최후선이잖아요! ㅋㅋㅋ
여러분! '시험처는그런장'에서 다맞기
위한
사고방식을
시켰습니다.

제 4 교시

성명 **이현호**

수험번호

3

1

1.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근거로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 ② 자유 의지를 부정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 ③ 인과적 질서에서 **박**이나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④ 삶의 만족을 위해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⑤ 현실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인**의 계시를 따라야 한다.

소외트 ←

자면에 새겨진 인, 크릴신 X

2. 다음 서양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곳의 구성원들은 어느 집안에 들어간들 **개인의 소유권**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빚장을 거는 일이 없다. 구성원들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지역의 공회당에서 **함께** 먹으며, 자녀들의 양육도 **공동**으로 담당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하루에 여섯 시간만 일을 한다.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들여 좋은 물품을 풍부하게 생산해 낼 수 있다. 이곳에서 경제의 최대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육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많은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모의소외 유동되어

- ① 공동으로 노동하되 불필요한 노동을 감호하지 않는다.
- ② 물질적으로 풍족하며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다.
- ③ 과도한 욕망을 삼가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 ④ 도덕적으로 살아가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중시한다.
- 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재화를 분배받는다.

함께 먹고 공동으로 양육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또, 유동적이라는 '사적인 재산'이 있다고 제시문에 서술되어있기에 5번이 반대 답이다.

3.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악덕과 덕은 이성이나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오직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이나 정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악덕**과 **덕**의 구별은 이성이 아니라 **도덕감의 산물**이며, **인지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느끼는 것이다.**

- 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라고 본다. → 악과덕이 감정을 통해 "구별".
- ② 도덕성은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감정을 **합리**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본다.
- ⑤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시(布施)하는 사람은 탐욕(貪)을 끊게 되고, 인욕(忍辱)하는 사람은 분노(瞋)를 떠나며, 선행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음(癡)을 벗어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 실천하면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가난하여 보시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그 복은 보시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 옳지않아.

<보기>

- 가. 연기(緣起)를 바탕으로 자비(慈悲)를 행할 수 있다고 본다.
- 나. 팔경도의 수행을 통해 해탈(解脫)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다. 집착과 탐욕을 버려야 무명(無明)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라. 불행의 자아를 깨달아야 고통[苦]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가 무명(무명)의 대립

- ㉠ 가, 나 ㉡ 가, 다 ㉢ 나, 다 ㉣ 나, 라 ㉤ 다, 라

5.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공산주의자들이 당면한 목적은 모든 프롤레타리아들의 목적과 똑같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성, 폭력을 통한 부르주아 계급 지배의 전복,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정치권력 획득이 그것이다.
- (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자유나 평등 없이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된다.

마르크스

민주 사회의



- ① (가)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를 이상 사회라고 본다. 사회주의 사상.
- ② (가)는 경제적 평등보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평등이 더 중요!
- ③ (나)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 ④ (나)는 의회 활동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유방임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음.
- ⑤ (가), (나)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 (나):도 '일부 공유'.

[6~7] 그림은 한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理)라면 "유위"라고 할 것임. 그러므로 이(理)는 무위(無爲)이고 기(氣)는 유위(有爲)이며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되는 것입니다. 이(理)가 가운데 있는 연유에 성(性)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理)는 맥리(脈理), 치리(治理)의 뜻을 빌려 만든 글자로, 이(理)가 성(性)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설은 기호(嗜好)일 뿐입니다.

갑  을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화하면 안 되고 보존...*

- ① 갑은 사욕을 극복하여 본성(性)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理)는 이(理)가 발한 것임*
- ② 갑은 이(理)를 발(發)하는 것이고 기는 말하는 까닭이라고 본다.
- ③ 을은 인간이 선한 이(理)를 통해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인의예지가 마음 안에 본래부터 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천리(天理)를 보존함으로써 성인(聖人)이 된다고 본다. *기(氣)는 이(理)를 통해 유위(有爲)하다*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대개 사람의 몸(體)은 이(理)와 기(氣)가 합(合)하여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理)는 서로를 위해 작용하고 서로 따르기에 호발(互發)이다. 따라서 이와 기는 각각 주체이며 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므로, 둘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로 말할 수도 있다.

- ① 칠정(七情)은 사단을 포함하는 감정이다. *이(理)는 발한다!*
- ② 사단(四端)은 사덕의 단서가 되는 감정이다.
- ③ 이와 기는 모두 형태와 운동성이 없는 것이다. *둘다 부정*
- ④ 이는 기가 없으면 스스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理)는 발한다!*
- ⑤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8.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동물의 바뀌*
동물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평생 동안 동물 안에서 사물에 묶여 있는 죄수들과 같다. 평생 동물 벽면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살아 온 죄수들은 그림자가 진짜 사물들이라고 믿는다. 어느 날 사물이 풀린 한 죄수가 동굴을 빠져 나와 사물들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행복을 경험한 그는 동료들을 동굴 밖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동굴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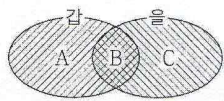
(나) ㉠ *정신 지배 안됨* *플라톤 민주주의 살아남*
그러면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 ① 각 계층에게 재산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라
- ②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라
- ③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하게 하라 *이(理)는 발한다!*
- ④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게 하라 *이(理)는 발한다!*
- 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참된 쾌락은 무한히 큰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 상태이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의 고통과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ataraxia]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에피쿠로스*

을: 고상한 쾌락을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기적이고 비열한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쾌락의 양보다 질을 고려하여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발*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기>
- ㉠ A: 행복한 삶은 공격적인 활동을 회피하는 은둔적 삶이다.
 - ㉡ B: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육체적 쾌락보다 바람직하다.
 - ㉢ B: 이상적인 삶은 모든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삶이다. *갑: 자연스런 정념 부정 X*
 - ㉣ C: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갑: 모든 정념 해방은 많음*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고만

여러분 이(理)가 발한 것이 찬성할지 안할지 많을 거예요. 근데, 에피쿠로스가 (가)선지에 찬성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타락시아"를 위해 단련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에 대해 판단을 내리시든 A나 B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소리예요. "시립장"이예요. 그냥 (가)선지 고 다른 문제를 푸셔야 해요

갑: 자연스런 정념 부정 X 모든 정념 해방은 많음. 근데 같은 정념에 대한 행동을 긍정했으면 많은 걸 내면!

제사담에서 "고상쾌락"은 내면세계! 이(理)가 발한 욕구 = 내면적 욕구 라고 생각하면 밑에가 맞는 선지!

10.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수행 평가

㉠ 문제: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키워드*

갑: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안정을 추구하지만 세계가 역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며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린다.

을: 인간은 죽음, 고통, 전쟁, 죄에 대한 책임 등의 한계 상황을 경험한다. 이러한 한계 상황은 자신이 가진 능동성의 한계를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만듦으로써 실존적으로 비약할 수 있게 한다. *아스페르*

㉡ 학생 답안

갑은 ㉠ 주체성이 진리이므로 진리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 주체적 실존에 이르는 단계로 실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를 주장하였다. 을은 ㉢ 이성을 통한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한계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 타자와 연대하여 실존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갑과 을은 모두 ㉣ 스스로의 결단으로 절대자에게 귀의했을 때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다 유신론! 인격 신을 믿어요!*

① ㉠ ② ㉡ ③ ㉢ ④ ㉣ ⑤ ㉣

실존주의? 기본적으로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태동한 사상. 여성을 통해 문제를 구했는 건 절대비율 논가.

11. (가)의 고대 중국 사상이 감,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감: 하늘[天]에 대하여 밝고, 성인(聖人)에 대하여 통달하고, 제왕(帝王)의 덕에 대하여 완전히 트인 사람은 자연 그 자체이므로 어리숙하며 고요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인이 고요하다는 것은 만물이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기에 고요한 것이다.

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해와 달보다 밝은 것은 없고, 땅에 있는 것으로 물과 불보다 밝은 것은 없고,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예의(禮義)보다 밝은 것은 없다. 이에 하늘과 사람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면 지인(至人)이라 부를 수 있다.

(가) **어리숙**
"자연 그 자체"
(가)

(나) 감,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

①: 출발 조건
②: 판단 내용
③: 판단 방향
④: 사상가의 입장

"도자"
"명자? No! 순자!"

<보기>

가. A: 하늘은 인간에게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인가?
 나. B: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해야 하는가?
 B: 무위(無爲)는 천지의 도(道)로서 인간이 행할 바인가?
 C: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아닌 스스로가 주재(主宰)하는 것인가?

- ① 가, 나 ② 나, B ③ B, C
 ④ 가, 나, B ⑤ 가, B, C
7. 둘다 아니에요. 순자는 천인합일이고, 도가의 해는 그저 자연스러움지 않아요.
 나. 일단 장자가 이성을 인정할 리 없겠지요? 그리고 순자에게도 '예'의 회복은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야 회복될까요?
 C. 장자는 당연히 ~~인정할~~ 인정할 것이고, 순자는 인위를 주장했으니 공경!
 C. 순자는 천인합일이 사상가가 공경!

12. (가), (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적 실체 같은 것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생명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인격으로서의 개인뿐이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나) 개인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관계 내에서 특정한 역사와 사회적 공간을 계승한다. 만약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들은 아무도 아닌 존재이거나 기껏해야 이방인이거나 추방된 자이다. **공동체주의**

- <보기>
- 가. (가)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나. (나)는 공동체의 역사가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B. (가)는 (나)의 권리 도덕이 공동체의 전통에 근거한다고 본다.
 C. (가)는 (가)의 도덕이 개인의 이익이 공동선에 우선한다고 본다.

- ① 가, 나 ② 가, B ③ 나, C ④ 나, B ⑤ B, C
- 여러분 이걸 꼭 해주세요??**
이런거 틀리면 안돼요 ㅠ_ㅠ

13. 한국 사상이 감, 중국 사상이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감: 앎과 행함을 둘로 갈라서는 안 된다. 스스로 능히 아는 것이 양지(良知)이며, 양지가 곧 양능(良能)이다. 양지의 확문은 마음과 이치를 하나로 하며 앎과 행함을 합치시킨다.

을: 앎을 극진히 하는 것과 행함에 힘쓰는 것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굳이 선후(先後)를 따지면 앎이 먼저이고 경중(輕重)을 따지면 행함이 더 중요하다.

<보기>

가. 감은 행하지 않는 앎은 앎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크 양명만 "실천" 중시.**
 나. 감은 앎을 마음 밖이 아닌 마음 안에서 구해야 한다고 본다. **크 양자 양은 뜻과 마음속!**
 B. 을은 앎과 행함의 일치를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본다. **크 감을 모두 도덕적 행위!**
 C. 감, 을은 모두 앎과 행함은 언제나 합일되어 함께 간다고 본다. **크 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

- ① 가, 나 ② 가, B ③ B, C
 ④ 가, 나, C ⑤ 나, B, C
- 제사문에 나와있고? 선무터치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14. 사회 사상이 감,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 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적 의사 결정을 위해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대답 스피드**

을: 정부는 실질 소득과 부(富)를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국내의 고용을 최최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통해 실제 구매력 있는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개인수장관련**

- 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기업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선 개인에게 직접한상기**
- 나. 감: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자유 경쟁 체제의 보장이 필요하다.
- ③ 을: 시장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크 국가개입의정**
- ④ 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크 복지확대가대**
- ⑤ 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크 복지확대가대 주장!**

15.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진리를 소유한다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고 중요한 다른 만족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진리란 신념으로서 좋다는 것이 입증된 것들에 대한 이름이다. 따라서 어떤 신념이 참이라고 한다면 실천적 경험에 있어 그 신념의 현금 가치(cash value)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 '이성', '절대자'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용어나 개념도 마찬가지로 현금 가치를 지녀야 한다. **크 제임스! 인제, 그냥 실주의라고 푸시면 됩니다.**

- <보기>
- 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신념은 옳은 것인가?
 나. 확고부동하고 잘 알려진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B. 경험과 관찰에 의해 실용성이 증명된 진리가 참된 진리인가?
 C.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 ① 가, 나 ② 가, B ③ 나, C ④ 나, B ⑤ B, C
- 크 학**

16.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덕적 행위의 기준은 공리의 원리입니다. 행위는 다수의 행복을 증대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고, 고통을 파생시키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르게 됩니다.

아닙니다. 도덕적 행위의 기준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에 있습니다. 실천 이성(實踐理性)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만이 옳습니다.

갑: 칸트
을: 벤담

갑: 칸트, 진짜 반갑네! 똑똑했네! 개심(改心)을

- ① 쾌락의 추구가 도덕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갑을
- ② 도덕의 기준을 행위의 결과에서 찾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갑을
- ③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④ 도덕이 행복 실현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임을 모르고 있다.
- 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모르고 있다.

칸트는 도교를 상황(상황) 따라 안바뀔까?
벤담은 이 선(善)이 안고있어?

1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소유하고 채택하는 바로 그 방식 때문에 가치들은 구체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배와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들은 나름대로의 근거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의 주장이 ㉠ 고 생각한다.

공정한 형태에 따라 분배
다원적
주장한 원리

- 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정의의 원칙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롤스는 간과하면! 롤스는 실제적, 역사적 요소가 아니라
- ② 정의의 원칙이 다원적 평등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롤스는 다원적 평등에 대해 "가상적" 상황에서서 원칙이 기준임!
- ③ 한 사회의 역사가 보편적 분배 원리의 기준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기본적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사회의 각 영역마다 다양한 정의의 기준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이런 당면(當面)을 들다... 침해될수없다고하겠죠...

18.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플라톤(플라톤) = 아우구스티누스

갑: 이데아는 유일하고 불변하는 신의 정신 안에 존재한다. 신은 인식의 대상이 아닌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며 영원하고 가장 완전한 선이다.

을: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신으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갑: 아퀴나스

<보기>

- ㉠ 갑은 신의 은총으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 ㉡ 을은 신학과 철학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 갑은 을과 달리 이성으로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 ㉣ 을은 갑과 달리 악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아퀴나스 당면(當面) 이성과 신 존재 증명할수있다고 봤죠!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악의 자유의지에서 결립되었다고 봤죠. ㉢선지는 둘 다 인정입니다!

19. (가)를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피줄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仁)을 파괴하는 사람은 도적이요, 의(義)를 파괴하는 사람은 강도이다. 도적이거나 강도는 하나의 필부(匹夫)이다. 폭군을 죽이는 것은 하나의 필부를 죽이는 것이지 임금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역상(역상) = 맹자

			양	명	
			도		

(나) [가로 열쇠]
(A): 육구연의 심학(心學)을 계승하여 양명학을 집대성한 명대(明代)의 사상가
(B): 한나라 말기에 천하태평(天下太平)의 이상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등장한 도교 사상

[세로 열쇠]
(A): 개념 아기후(아기후)를 찾았으면 아니요? ...
그러면 안되지만, 사립(사립)이었다면 '영도(영도)라고 때려쳐(때려쳐) 두 있어(있어) ...

- ① 신하가 일을 하도록 법(法)과 술(術)로써 조종하는 정치이다.
- ② 덕(德)을 바탕으로 백성(民)의 향산(恒産)을 보장하는 정치이다.
- ③ 예의(禮義)로 타고난 성정(性情)을 변화시켜 나가는 정치이다.
- ④ 통치자의 권력이 백성과의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정치이다. → 민본(민본)정치는! 권력 = 도(道)가 백성과의 합의 X
- ⑤ 백성에게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無爲之治)을 행하는 정치이다.

20. (가), (나)는 근대 한국 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서학을 막고 서양 물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道)를 밝혀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야 한다. 정학(正學)이 성(盛)하면 이단(異端)은 사라질 것이다.

(나) 서학은 천도(天道)와 비슷하나 다른 점이 있다. 서학은 한울님을 위한 듯하나 진실이 없다. 한울님이 주신 사명과 한울님을 신앙하는 도리는 같으나 실제적인 이치는 다르다.

very easy ~~~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